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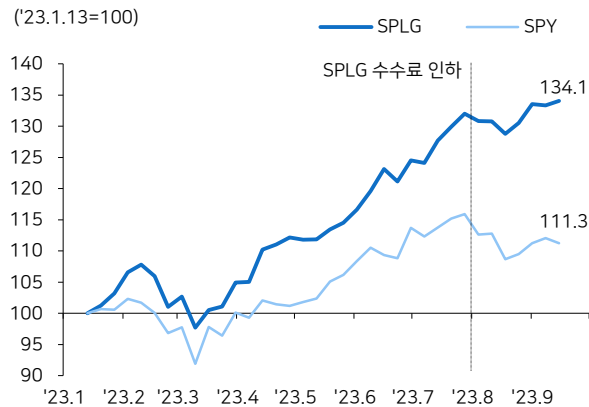
미국 ETF 수수료 인하 경쟁과 유입강도 차별화

미국 ETF 수수료 경쟁 가운데 자금 유입 강도 차별화 진행 중. 지난 8월 State Street의 S&P500 지수 추종 ETF인 SPLG는 수수료를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 가장 저렴한 0.02%로 인하. S&P500 대표 ETF인 SPY의 수수료인 0.09%의 4분의 1 수준. 8월 이후 증시 부진에 SPY AUM은 7월말 대비 4% 감소했음에도 SPLG는 1.6% 증가한 202억 달러, 연초대비로는 34% 증가. SPLG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억 6천2백만 달러로, 규모 및 거래량 면에서 적지 않아 SPY 대체 가능성 모색해볼 수 있음

State Street의 ICE BofA US High Yield Index를 추종하는 SPHY는 8월 1일 수수료를 0.1%에서 0.05%로 인하, 이후 9월 15일까지 약 7.2억 달러 자금 유입. 연초 AUM이 8.3억 달러였다는 점에서 비교할 때 매우 강한 유입 강도. SPHY와 비교해볼 수 있는 대표 하이일드 ETF는 Blackrock의 HYG ETF. 해당 ETF의 수수료는 0.49%로 SPHY의 약 10배에 해당. 연초 이후 금리상승에 HYG ETF AUM은 연초대비 75% 수준으로 감소한 140억 달러, SPHY의 AUM은 약 2.3배 증가한 2.1억 달러, 일평균 거래대금은 각각 20.2억 달러, 3870만 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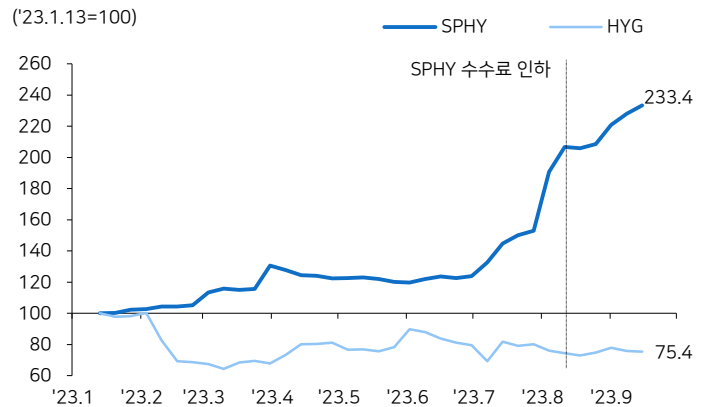
전일 발표된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전월대비 5pt 하락한 45로 시장기대(49) 하회. 미국 주택시장지수는 금리상승에도 작년 11월 저점 이후 7월까지 상승. 그러나 모기지 금리가 30년 만기 기준 다시 7%를 상회하면서 주택시장은 8월 이후 2달 연속 하락하기 시작, 작년 9월 수준까지 하락. 높아진 금리 부담이 후행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, 추세적인 주거비 안정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. 다만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한 작년 11월부터 주가 상승 이어졌던 미국 홈빌더(XHB ETF)의 주가는 8월부터 부진, 추세 고민할 시점

그림1 SPLG vs SPY ETF AUM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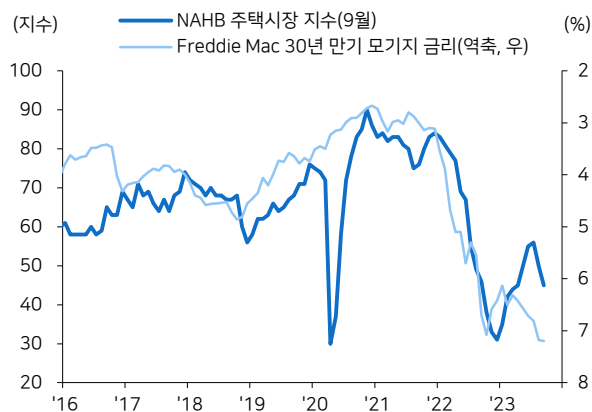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SPHY vs HYG ETF AUM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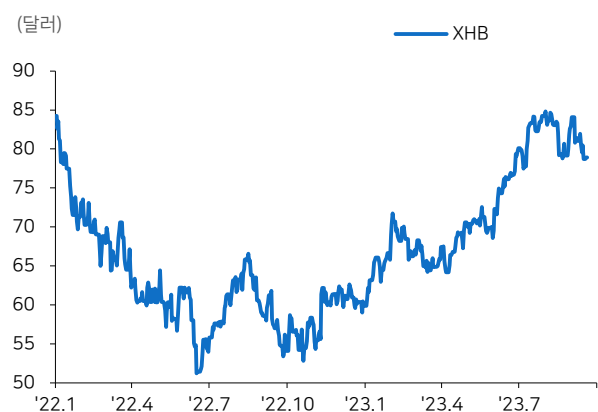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미국 주택시장지수와 30년 만기 모기지금리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XHB ETF(미국 홈빌더 ETF) 주가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